

심재학의 그림자론…“엄마같은 코치 되겠다”

코치, 그들을 말한다

■ 넥센 심재학 수석코치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코치에게 일임
난 감독과 코치 사이의 소통 도울 것”

프로야구에서 수석코치는 감독의 조력자다. 감독의 지도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령탑과 선수, 담당 코치 사이의 매신자가 되어 한다. 기술보다는 멘탈(정신력)에 신경 쓸 일이 많다. 이는 오랫동안 각 분야 담당코치로 일하다 수석코치가 된 지도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넥센 심재학(45) 코치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타격·수비·주루 담당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하다 장정석(44) 신인 감독의 부임에 맞춰 처음 수석코치를 맡게 됐다. 처음 맡는 보직에 대한 부담이 클 법한데도 철학이 확실했다. “이제는 감독님과 같은 시야로 야구를 봐야 한다.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감독님이 야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말마다마다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장 감독이 “나와 심재학 수석코치의 두 눈을 각각 더해 4개의 눈으로 팀을 지휘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넥센 잔류 택한 이유, 끈끈한 정과 고마움

2016시즌이 끝난 뒤 넥센 코칭스태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염경엽 전 감독이 사퇴하고, 장 감독이 부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1군 코치 4명(이강철·손혁·박철영·정수성)과 결별했다. 쉽게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던 심 코치는 고민 끝에 수석코치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 지도했던 선수들이 눈에 밝혔고, 팀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였다. 타격코치 시절에도 타자들의 멘탈 강화에 큰 도움을 줬던 터라 수석코치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심 코치는 “넥센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정이 있다. 선수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은퇴하고 방황하던 시기에(2008시즌 직후) 나를 코치로 받아준 팀이기에 고마움이 굉장히 컸다. 타 구단의 제안도 있었지만, 이 팀(넥센)이 좋고 끌려서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와 다른 시선으로 선수들을 바라봐야 한다. 신경 쓸 부분도 더 많아졌다. 과거에는 주된 임무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이었다면, 이제는 관리가 우선이다. 장 감독이 “여러 가지를 심 코치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심 코치를 잘 알고 있어서다.

심 코치와 장 감독은 현역 시절 현대(2000시즌)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했다. 심 코치가 히어로즈



넥센 심재학 코치는 올해부터 수석코치로 새롭게 출발한다. 2009년부터 8년간 타격·주루·수비코치를 맡아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힘썼다면, 올해부터는 감독과 선수, 코치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스포츠동아 DB

코치로 부임한 이후 장 감독은 쪽 운영팀장과 1군 매니저로 일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다. 심 코치는 “감독님이 운영팀장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독님은) 누구보다 구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과거에는 내가 맡은 부분만 하던 됐지만, 이제는 감독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담당 코치들의 의견을 정확히 감독님께 전하는 것도 내 몫이다. 선수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술 조언 엄금”에 담긴 심재학의 메시지

심 코치는 이미 수석코치직을 수행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상태였다. 8년간 선수들의 기술지도에 힘쓰면서 “코치님 덕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그다. 넥센 타자들은 슬럼프에서 벗어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심 코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그가 수석코치로 부임한 올해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듯하다. 심 코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선수가 직접 다가와서 조언을 구해도 담당 코치와 얘기하게 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을 수석코치가 조언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내가 아닌 담당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내가 선수들로부터 ‘수석코치님’ 덕분이다, 수석코치님이 최고다’와 같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고마움의 표현도 내가 아닌 담당코치에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수석코치의 역할이다. 그래야 담당코치들의 권위도 선다. 수석코치가 나서는 것은 담당코치들에 대한 월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코치가 강조한 수석코치의 또 다른 덕목은 참음성이다. 수석코치는 선수들이 조언을 구할 때

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선수들에게 직접 얘기해선 안 된다. 나는 말 그대로 그림자가 돼야 한다. 간섭이 아닌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잘돼야 현장 분위기도 좋아진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내가 나서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가장 힘든 것이 참는 것이다. 선수들이 직접 다가와 조언을 구할 때까지 참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며 “우리 코치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팀 내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내가 그 선수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코치가 선수를 키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지 선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분이다. 특히 신인 선수들의 메카닉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기 전까진 절대 먼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팬 여러분, 감독님 걱정 마세요”

장 감독에게 따라붙는 수석어는 ‘초보 감독’이다. 넥센의 1군 매니저와 운영팀장으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지도자 경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 코치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장 감독님은 야구인 출신이고, 운영팀장과 매니저로 일하면서 여러 감독님을 도와주신 분이다. 절대 지도자 경험 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현장 스태프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도 도움을 주셨다. 실제로 나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팬들의 우려를 불식할만큼 야구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인터뷰 말미에 심 코치는 “정말 답답이 없는 것이 야구”라고 했다. 박병호(미네소타), 강정호(피츠버그) 등의 빅리거들을 지도했고, 성과를 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생각할 것이 많다는 의미였다. 그는 “타격코치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이 정말’이라는 말은 못 한다. 그래서 야구가 더 어려운 것”이라며 껄껄 웃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심재학

▲생년월일은 1972년 10월 18일 ▲출신교=영중초~충암중~충암고~고려대 ▲키·몸무게=183cm·98kg(좌투좌타) ▲프로선수 경력=LG(1995~1999년)~현대(2000년)~두산(2001~2003년)~KIA(2004~2008년)▲프로통산 성적=1247경기 타율 0.269(3704타수995안타), 149홈런, 622타점 ▲지도자 경력=넥센 2군 타격코치(2008~2011년)~넥센 1군 외야수비코치(2012년)~넥센 1군 작전·주루코치(2013~2014년)~넥센 1군 타격코치(2015~2016년), 넥센 1군 수석코치(2017년~)



선수협-야구학교 자율훈련 업무협약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호준 회장(왼쪽)과 야구학교 이상필 교장이 10일 경기도 분당구 투아이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KBO리그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야구학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자율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삼성 키플레이어 구자욱 “매년 발전하는 게 목표죠”

삼성 구자욱(24)은 2017시즌 여가게 무겁다. 이승엽(41)이 있지만 최형우(34·KIA)와 차우찬(30·LG) 등 핵심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았다. 겨우내 체중을 7~8kg 가량 늘리면서 파워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 삼성 트레이너 이한일 대표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TREX 트레이닝센터에서 매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

구자욱이 이토록 몸단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팀의 3번타자를 맡을 예정이다. 키 189cm에 몸무게 75kg, 호리호리한 체형이지만, 정확성과 더불어 타점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장타를 칠 파워도 필요하다. 삼성 김한수 감독도 “지금 당장 구자욱에게 30홈런을 치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매년 1kg이라도 체중을 늘려서 나중에 그만큼 장타를 뿔어낼 수 있는 타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과제를 내준 상태다.

구자욱도 이에 맞게 몸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홈런타자가 되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그는 “장타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선을 긋고는 “홈런은 치고 싶다고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홈런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리해서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가 있다. “매년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로 잡지 않는다. 올해 안타를 147개 쳤으면 내년에는 1개라도 더 치겠다는 마음으로 타석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욱은 항상 그랬다. 타순이나 보직, 주위의 기대보다 자신이 세운 엄격한 잣대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유가 있다. 2012년 프로에 입단해 3년간 이를 악물고 2군에서 준비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단순히 보이는 숫자가 아닌 노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트레이드마크가 된 1루까지 전력질주에 대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일그러진 얼굴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구자욱은 “올 시즌 어떤 타순이든, 어떤 보직이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약속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U-20 월드컵 나이 속이면 업무방해죄…‘제3세계’ 국가서 빈번



Sports & Law Story

양종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백혈구·손목뼈 MRI 등 통해 나이 검사
개최국 수사권, 참가국에 미치지는 않아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는 무엇일까? 월드컵이스트볼 클래식(WBC) 예선?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세계테권도선수권대회? 각자 좋아하는 종목과 취향이 있어 중요하다. 또한 다르게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들고 싶다.

U-20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는 공식대회 중 성인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서귀포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연령별 대회이다 보니 4년마다 열리는 성인월드컵과 달리 2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 우리나라에는 ‘붉은 악마’라는 별칭을 선사한 대회로도 인연이 깊다. 1984년 멕시코 4강 신화 당시의 일이다. 상대팀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우리 선수들이 발떼처럼 달려드는데 매우 두려워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붉은 악마’라는 별칭을 선사한 이유다.



올해 5월 20일부터 국내 6개 도시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열린다.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에 나서는 선수가 나이를 조작한다면 분명히 범죄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최국의 수사권이 참가국에 미치지는 못한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열린 U-20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슬로건 발표 행사 모습. 뉴스시스

세계대회를 연령별로 개최하는 것은 축구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구기종목에는 연령별 대회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니어와 시니어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신체 발달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적 능력과 기술 습득 능력 등을 합치면 20대 중후반 즈음 최고조에 달한다. 특히 성장기인 10대~20대에는 한두 살 차이로도 경기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연령별 대회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나이를 속이고 출전하는 경우다. 특히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많다. 우리나라도 영·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태어난지 1~2년이 지나 생존이 확인된 뒤에야 출생신고를 하곤 했다. 이런 경우는 취학도 늦고, 그에 따라 운동 시작도 늦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나이를 자제를 조작하는 경우다. 제한 연령을 넘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출생서류를 조작해 참가하는 것이다. 우리 법으로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횡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

FIFA도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U-17 월드컵이나 U-20 월드컵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기도 했다.

손목뼈를 촬영해 나이를 가늠하는 방식이다. 정확성 여부를 떠나 검사 자체로 사안에 부정 한 선수의 등록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나이 측정은 어느 정도 정확할까? 나이 측정은 법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범인이나 사망자가 남긴 인체 조직을 통해 나이를 추정하면 수사범위가 훨씬 좁아지기 때문이다.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아상 태로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령 대별로 10% 가량의 범위 내에서 나이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10대의 경우 한 살, 20대의 경우 두 살, 30대의 경우 세 살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인종, 식습관, 양치습관 등에 따라 좀더 오차가 벌어지거나 좁아질 수도 있다.

또 타액, 혈액구, 대뇌피질 검사 등을 통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연구 결과에 따라선 1년 6개월~3년 가량의 오차를 두고 나이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현대 과학으로도 신체검사를 통해 나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출산기록, 병원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더해져야 한다.

그런데 나이 속이기로 인해 징계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뭘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미치지 어렵기 때문이다. 참가국에서 조직위원회에 조작된 나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최국의 수사권이 참가국에 미치지 않는다. 수사권은 주권(主權)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가 외국 수사기관이 자국에 들어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는 것을 용납할까? 또 FIFA에 사실조사권이나 징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스포츠는 원래 ‘여가’를 뜻하는 말이었다. 즐긴다는 의미가 훨씬 강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경쟁이나 승부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부정이 개입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즐김의 영역으로 되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편집 | 심송수 기자 sss23@donga.com